



충청남도경제진흥원
Chungcheongnam-do Economic Promotion Agency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 광 옥

더 행복한 충남

소민국의 중심

소상공인은 서민 경제의 뿌리,
중소기업은 충남 경제의 줄기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충남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전경



찾아가는 중소기업 CEO 경제포럼

충청남도 경제산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전반적으로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나요

두 가지 관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비대면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고 둘째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먼저 비대면 흐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저희 경제진흥원은 오프라인 중심사업을 신속히 비대면 사업으로 수정 개편하였습니다. 총 56개 사업 중 57%인 32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온라인 플랫폼 판로개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홍보비 지원과 농사랑(충남도 온라인 전용 쇼핑몰) 및 e Commerce, TV홈쇼핑 등 다양한 판로개척 사업을 통하여 지원해 드렸습니다. 특히 농사랑을 통한 매출은 약 270억원 상당 올렸는데 이것은 전국 시도 자체 쇼핑몰 중 최고의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일본무역보복에 이어 코로나로 인한 피해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9년 2,200억원에서 '20년 4,3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향후 자금지원규모를 금년 5,700억원, '22년에는 6,000

억원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기업당 한도를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19년 이전에는 시군에서만 취급하던 경영안정자금을 경제진흥원에서 처음으로 취급하게 되어 중소기업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인을 위한 '경제인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기업신용등급 관리 교육을 9차례에 걸쳐 실시하였고, '비즈콜센터'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전문가의 심도 있는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원장이 직접 기업을 찾는 CEO 컨설팅 등을 함께 진행하는 등 현장을 중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사업에는 글로벌 강소기업육성, 충남형 챔피언기업 육성, 중견기업을 위한 월드클래스플러스기업육성사업, 가업승계준비기업지원, 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의 C기업은 소부장 으뜸기업(산자부, 매년 20개 업체 선정)에 선정되어 매년 50억원의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는 혜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은 현장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기도 하고 자력으로 위기를 타개할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정책적 배려를 하였습니다.



충청남도 경제인 아카데미

시·군과 연계한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진흥원은 충남도의 경제관련 기획사업을 수탁받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충남도 사업위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의 15개 시군을 보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 해외나 온라인 플랫폼 등 전문분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제진흥원은 이런 시군 사업을 묶어 추진한 결과 '20년에는 9개사업 90억원의 성과를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천안시와 당진시 사업입니다. 천안시의 경우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5년간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은 벌써 3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슬럼화 되고 있는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당진시는 지역 100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산시, 홍성군 등에서 해외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시군 협력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인 농사랑을 통한 시군사업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농사랑은 약 2만 7천 농어가가 참여하고 회원수가 5만5천명에 이르는 대한민

국 대표적인 지자체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시군의 특산물, 가격폭락 농산물, 화훼 등을 집중 판매해 드리고, 제철 과일과 명절 판매전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0년에는 4개 시군(아산시,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의 농산물 7.6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명절 등 기획전을 통해 236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농사랑은 이외에도 공공정책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65세 노인을 위한 견주(견기 프로그램), 혈액원과 헌혈활동 지원, 청년농부 온라인 판매지원, 산모를 위한 할인쿠폰 발행 등의 이벤트도 진행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지속적으로 시·군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운동을 통해 농어민들의 매출과 수익을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에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제진흥원은 '20년에 인도 뉴델리와 베트남 하노이에 해외통상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2명의 소장 포함 12명의 직원이 충남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핵심 거점지역으로 향후 높은 성장이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 실무중심교육



(사)한국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충남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_ 왼쪽부터 한국 (사)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 양다연 팀장, 박미숙 사업이사, 충남경제진흥원 한희철 경영전략실장, 홍성숙 과장

기대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금년에는 인도네시아 해외사무소 개소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사무소장 선발을 완료하였고, 현지에서는 건물임차 및 해외사무소 행정 승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준비작업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해외통상사무소를 개설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실질적인 수출지원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다시말해 '충남 무역상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현재 해외에서 소규모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전무합니다. 현실적으로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등은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 이상 기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출 100억 미만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은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저희 해외통상사무소는 바로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실제 수출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개소 첫 해 여러 분야에서 성과도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Lock Down 상황속에서도 약 70만불의 수출을 완료했고, 상담액은 500만불을 상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게는 몇 백불의 샘플상품에서부터 만불 단위의 소액 수출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출 초보기업,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 중심의 목표 설정에 충실한 결과입니다. 특히 인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현지 로펌 등 용역업체에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입

은 기업 구제나 수출대금 미수금(5건 6만불)을 회수해 주는 등 작은 기업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지난 6월 코로나가 크게 재확산된 인도의 경우 저희 해외사무소에서는 교민들을 위한 병원 안내, 앰블런스 확보, 산소 발생기 알선 등 교민지원을 위한 활동도 적극 수행하여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3곳의 해외통상사무소를 보유하게 되는 경제진흥원은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로 수출지원 기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성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FTA 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관세 인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세 2% 인하는 현지 소비자가격 10% 인하효과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FTA센터는 FTA교육, 원산지증명서발급, 관세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FTA 수출 활용률을 보면 전국은 10.6%p 증가인데 반해 충남은 14.8%p로 더 높은 증가의 성과를 보였고, 최근 4년간의 실적만 놓고 보면 전국에 비해 충남은 약 5배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한 수출지원 외에도 경제진흥원은 FTA 등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충남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겠습니다. 해외인증, 물류비지원, 세계적인 온라인 플랫폼(B2B, B2C) 입점지원, 수출 패키지지원사업, 전문 전시회와 박람회 지원 등 현장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업무협약



소상공인 역량강화교육

중소기업 지원도 있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지원과 대책들이 있나요

경제진흥원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시적인 지원보다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 사업에는 반드시 컨설팅과 교육 사업이 포함되게 했습니다. 지역별 규모별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게 맞춤형 단계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부상 콜센터’를 운영하여 소상공인 밀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부상 콜센터는 소상공인들의 애로상담, 지원 사업 안내, 전문가 자문 연계, 제도개선 접수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수·발신 콜 수가 5천 건을 넘어설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로 “20년 충남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사업은 총 8개 약 47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특히 팀닥터 사업을 신규 개설하여 단순히 비용지원이 아니라 현장방문과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 후 환경개선 자금(비용)지원의 방식으로 지원 효과가 1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히 진행하였습니다. 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 1인창조기업센터 운영, 협업 마케팅, 청년상인 전시판매지원, 구독경제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첨언하면 중소기업들을 위한 각별한 정책 발굴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건실한 중소기업 확대가 핵심 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판단하에 경제진흥원에서는 ①ESG 경영확산 ②IPO 상장사 확대

③공공조달시장 판로개척 ④소부장 기업 육성 ⑤기업재무관리 특별교육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적 발전 전략과 계획 그리고 추진사업은?

경제진흥원은 ‘비전 2025’를 통해 ‘글로벌 판로 개척 전문기관’을 목표로, 전 임직원이 함께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인간애, 도전정신, 전문성’을 실현하여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에서,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하는 ‘made in chungnam’을 키우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5년내 전국 ‘경제진흥기관 BIG 5’로 도약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온라인 마케팅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현재 농사랑 플랫폼이 농산물 중심인데 공산품, 수산물까지 망라하여 종합 온라인 마켓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더 발전적인 계획은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별도 법인설립과 해외 온라인 시장 개척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충남경제동향센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경제동향센터를 경제진흥원에 설치함으로써 중장기 충남경제정책 수립과 위기대응 프로그램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충남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연구 중심의 경제동향센터에서 현장 중심의 현장의 데이터와 목소리를 담아내는 기능을 하겠습니다.

셋째, ‘벤처캐피탈 투자조합’ 업무를 이관 받게 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관리 중에 있는데 지금은 사무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사업과 고객군이 중소기업인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

바 투자조합과 기업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활동이 이루어지게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와 금융, 기술의 전문기를 영입하여 보다 전문적인 '충남 중소기업 자금지원센터'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투자조합이 기술이나 미래가치가 높은 충남의 스타트업기업이나 재무상태가 열악한 유망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자를 받아서 성공하는 기업 풍토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선진적인 교육과 경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진흥원은 이미 충남도 육성자금 관리기관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금융의 노하우가 축적된 기관인데 이제 투자, 모험자본의 직접금융까지 아우르게 되었으니 이는 전국 어느 시·도에도 없는 새로운 모형이 제시될 것입니다.

넷째, 위 투자조합의 활성화는 IPO, 상장사 확대전략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20년말 전국 상장사는 2,242개사에 충남은 92개사로 약 3.9%에 불과합니다. 상장사 확대는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으로 5년내 충남 상장사를 250개(전국의 약 10%)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 경제는 지금과 완전 다른 환경이 될 것입니다. 기업 상장은 주식시장과 밀접하고 요즘 이슈가 되는 주가와 관련지어 단순히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중소기업 경영에서 상장의 의미는 매출, 고용, 조직, 재무 등 모든 경영 부문을 선진 경영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 중소기업 확대는 건실한 중소기업과 동의어가 아닐 수 없는 만큼 충남기업 상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중소기업 경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명제는 쉽게 말해 '망하지 않는 중소기업, 지속성장하는 중소기업 경영'은 무엇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창업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창업후 5년내 파산할 확률이 60~80%에 달합니다. 4~5개 기업 중 1개 기업만이 5년을 버틴다는 통계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얻은 경험칙은 특히 기술창업은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경영은 기술외에도 전략, 조직, 재무, 자원, 마케팅 등 여러 분야의 조화와 균형이 중요한데 기술의 분야를 경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쉽게 위기를 맞게되고 파산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6개 경영분야의 균형과 조화를 의미하는 360° 경영을 주창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360° 경영은 경제진흥원 업무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자들은 맡는 사업만 기업들에게 소개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해 60° 상담에 불과합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360° 상담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360° 상담은 담당 업무외 경제진흥원의 다른 사업을 소개하여 지원 가능여부를 상담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타 공공기관, 정부지원사업에 심지어는 금융기관, 특허에 까지 전방위적인 정보 제공과 상담을 의미합니다. 이런 활동은 경제진흥원을 지원기관에서 정보제공기관, 정보와 기업간의 브릿지(가교)기관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업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지고 실질적인 기업지원으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충남 경제진흥원 사업에는 이런 경영 철학이 담겨 있고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경제진흥원의 사업과 향후 구상에 대해 충실히 가감 없이 설명 드렸습니다. 지면 관계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방향성만은 잘 전달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진흥원장으로서 충남의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더 겸손한 자세로 더 따뜻하게 더 실효성 있게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잘 되어야 복지도 잘 됩니다.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경제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AJ** 원현동 기자